

성명	박수홍	수험기간	2024.03~2025.07.
학교	고려대학교	전공	전기전자공학부
키워드	생동차 전체 21등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62기 변리사시험 감사하게도 생동차로 합격한 박수홍입니다. 아직도 이 글을 쓰는 저 자신이 믿기지 않습니다. 합격자들의 합격수기에 큰 도움을 받았던 제 경험을 토대로, 변리사 시험 합격을 바라보는 모든 분께 제 합격수기가 조금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합격수기 활용방안】

합격수기는 지극히 합격자 개개인에게 맞았던 공부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 공부방법이 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선배 변리사님들의 합격수기를 '참고'하여, 제게 잘 맞을 것 같은 부분들만 **선택적으로** 수집하여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맞는 공부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97.5점	95점	70점

【커리큘럼】

	2024.3~6월	7월	8월	9월	10월	11~12월	2025.1월
민법	기본강의	기출문제 풀이	객관식			회독 및 문제풀이	최판강의
특허법	학기병행 (16학점)	기본강의	객관식				최판강의
상표법			기본강의	객관식	중급강의		
디보법				기본강의	객관식		
물리		회독 및 문제풀이					
화학		기본강의	회독 및 문제풀이				
생물			기본강의			회독 및	
지구과학					기본강의	문제풀이	

-민법- <점수: 97.5점>

【강의 및 교재】

-함성배 민법 기본강의, 최신판례강의 / 알짜민법, 변시객관식민법

【공부 방법】

민법은 1차 시험에서 공부량으로 가장 큰 비중과 방대한 양을 차지하는 과목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모법(母法)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꼭, 정복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3월부터 민법 기본강의를 듣기 시작하였는데, 180강이 넘는 압도적 분량과, 3-1학기의 전공 공부 병행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민법 기본강의를 들으려다 보니 장장 3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본강의 듣는데만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들은 내용을 복습 안해서 나중에 다시 듣게 되면 큰 손해라고 생각하여, 새로운 진도를 나가지 못하더라도, 복습은 매일 하였습니다. 아무리 학기 병행이 고통스러워도 꼭 들었던 강의를 다시 들어야 하는 불상사는 막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감이 안 잡혀서 '그냥 썩으로 모든 내용을 외우자'라고 생각하여 안보고 판례를 말할 수 있도록 달달 외우려했는데, 이는 너무 무모한 짓임을 객관식 풀며 깨달았습니다. 1차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선지의 정오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암기하는 것이 가장 수험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회독'이라는 개념이 공대생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저는 이 '회독'을, 조금씩 머릿속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음영이 필요한 부분은 음영처리(강약조절)을 하며, 색을 점점 더 칠해서 그림을 완성시킨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처음 회독할 때부터 모든 내용을 다 머릿속에 넣겠다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되며, 애초에 원시적 불능입니다. 강약조절은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어디가 빈출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기억의 선명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독 '수'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 한 회독을 정말 알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알찬 회독을 계속해서 지겹도록 하는 것이 결국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회독 수를 세지는 않았으나 정말 많이 하긴 했습니다.

문제풀이는, 저는 객관식을 1/3로 나눈 후, 문제풀이를 진행하여 1권을 풀 때, 3회독하는 효과를 내보려 노력했고, 기본서 회독과 객관식을 1:1의 비율로 가져갔는데, 이때, 기본서 회독한 내용은 곧바로 객관식에서 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총칙 부분을 기본서 회독했다면, 문제풀이는 채권총칙 또는 채권각칙으로 진행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5점>

[강의 및 교재]

- 리담특허법 기본강의, 최신판례강의 / 리담특허법, 도해특허법, 조문집
- 리담상표법 기본강의, 판례강의, 최종정리강의 / 리담 상표법, 정리노트, 조문집
- 리담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 리담 디자인보호법, 정리노트, 조문집

[특허법] [19/20]

변리사 시험의 꽃인 특허법은 2차에도 많은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악명높은 과목이므로,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다져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문제가 너무 쪼잔합니다. 심판장, 특허심판원장, 특허청장 등 주체부터, 30일과, 1개월 등, 기간을 교묘하게 바꿔 틀린 선지로 만들기 때문에,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 헛갈리게 만드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차 합격에는 조문 번호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나, 2차 때 조문의 위치를 찾거나, 답안 쓸 때 조문 번호 병기가 기본이므로, 암기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자주 보면서 외워지는 것만 외웠습니다.

사실 처음 기출문제 객관식 풀 때 비가 쏟아져 내리는 채점 결과를 보며, 멘탈이 박살 나기도 했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틀리면서 교묘하게 바꾸는 포인트들을 공부하고, 계속 틀리는 것은 그냥 암기하자는 식으로 공부했고, 반복해서 기본서 회독 및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 실력이 어느 순간 늘어있었습니다.

리담특허법은 책이 매우 두꺼워서 회독하기가 좀 버거워서 도해특허법에 추가적으로 리담 특허법 내용을 조금씩 추가하여 단권화하고, 자주 틀리는 부분들도 함께 적어서 반복 회독했습니다. 객관식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었고, 추가적으로 최대한 얇은 객관식 책(코멧 특허법 객관식)을 찾아 풀었습니다. 사실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있으므로 이것만 열심히 반복 회독해도 1차 합격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하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법】 [9/10]

특허법 공부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법은 판례의 사실관계와 대법원 또는 특허법원의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표만 중급강의(판례중심)를 따로 들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상표 역시 회독과 문제 풀이의 비율을 1:1로 가져갔습니다.

【디자인보호법】 [10/10]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에 70% 정도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배워야 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기출 난이도가 특허에 비해 쉬운 편이라 디자인보호법에서 고득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2회 1차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너무 특허법스럽게 문제가 나온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체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공부 방법은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진행했습니다.

【2차에 도움이 되는 공부방법】

저는 이 시험은 결국 2차를 합격해야 끝나는 시험이므로, 어떻게 하면 1차 내용이 겹치는 특허, 상표에 대하여 2차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직접 전략을 수립해보기 위해, 1차 특허 상표 기본강의를 듣고 회독도 몇 회 진행한 이후, 도서관 폐지수거함에 다른 수험생분들이 버려놓은 2차 수험서 중 사례집을 주워서 실제 2차 문제들이 어떤지, 답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읽어보았습니다. 1차를 준비하고 있더라도 쉬는 시간이나, 가끔 공부 안 될 때 2차의 기출문제 및 강사님 답안을 읽어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두가지 공부방법을 떠올렸는데, 하나는 “기본서의 목차 및 하위목차들을 외우면서 각 개념들의 주소설정을 해놓자”, 그리고, 또 하나는 “판례를 명확히 이해하고, 쓸 수 있게 암기해놓자” 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자는 “굳이”고, 후자는 추천합니다.

2차에 진입하게 되면, 2차 시험에 적합한 기본서를 모두 새롭게 구입하게 되고, 해당 기본서의 목차들은 제가 공부했던 1차 기본서의 목차와는 체계가 뭔가 많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새롭게 새 기본서에 맞춰 주소 설정을 하게 되므로, 1차 기본서의 목차를 막 열심히 암기하는 것은 ‘굳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대한 이해 및 암기는 2차 수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차의 입장에서 1차 시험 후, 2차까지는 사실 민사소송법이라는 거대한 압박감에, 비교적 특허 및 상표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1차 때 판례의 키워드와 사실관계를 열심히 공부해 놓은 덕분에, 훨씬 2차 시기에 특상에 대한 암기 및 이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1차를 합격하는 데는 과도한 투자일 수 있고 고통스럽긴 하나, 2차 때 느낄 고통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판례 공부(암기까지) 해놓으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또한 시간의 여유가 되신다면, 1차 합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민사소송법 기본 및 사례강의를 수강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사소송법을 듣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여 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2차 기간에 민사소송법을 소화하는데 큰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70점>

【강의 및 교재】

- 물리: 알기 쉬운 변리사 물리 자료
- 화학: 새로운 화학
- 생물: 크리티컬 Point 생물
- 지구과학: 박준희 강사님 / High-end 지구과학

【물리】 [8/10]

저는 과 특성상 물리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과학 오카방 등에서 제공되는 객관식 pdf와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반복해서 풀었고, 그중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 공식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노트로 정리하여 회독했습니다.

【화학】 [7/10]

화학 기본강의를 수강하였는데,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도 어느 부분이 빈출되고, 어느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야할지 강약조절을 해주시기 때문에, 기본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아는 부분은 빠르게 넘기면서 빈출 파트 위주로 공부했고, 당시 화학 과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외생 도와주면서 저도 문제 풀이 연습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생물】 [4/10]

생물도 사실 화학과 비슷하게 공부하였으나, 너무 암기할 내용이 많고, 기출문제를 보면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 많이 출제되는 것 같아, 최대한 방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 조금이나마 친숙하다고 느껴지는 단원만 확실하게 공부하고, 그 외에는 눈에 그냥 바른다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제가 열심히 안 본 내용에서 많이 나왔길래 과감히 한 줄로 찍었고, 아는 것만 제대로 풀었습니다.

【지구과학】 [9/10]

다른 과목에 비해 비교적 난이도가 쉽게 나오는 과목이므로 대부분의 수험생이 지구과학에서 무조건 9~10개의 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절대 버려서는 안되는 과목입니다. 박준희 강사님의 기본강의 수강 후, 기본서는 읽지 않았고, 필기노트만으로 회독하고 문제 풀이 진행했습니다. 워낙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공계 수험생이라면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고득점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공통】

자연과학개론은 모든 내용을 커버하려고 하면 민법보다 양이 방대해집니다. 따라서 강약 조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물리, 화학 베이스가 있어서, 생물을 최대한 힘을 뺐고, 물화지에서 고득점하겠다는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해당 연도 시험에 어떤 과목이 어렵게 출제될지는 알 수 없으므로 모든 과목을 고루 공부하는 것이 물론 제일 낫지만, 자연과학은 통상적으로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인의 성향에 따라, 강약 조절을 적절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생물과 지구과학을 우선적으로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물리, 화학을 순차적으로 풀었습니다. 이는 기출문제를 풀면 알 수 있듯이, 생물과 지구과학은 원가를 계산하기보다는 해당 선지를 보고 곧바로 정오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물리와 화학문제를 풀 시간을 비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시간 관리】

시험 두달 전까지는 하루 9~10시간 정도 공부했고, 일주일에 하루는 꼭 통으로 쉬어주었습니다. 하루 9시간 공부 기준 민법 3.5시간, 산재법 3.5시간, 자과 2시간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머리가 썩썩했던 오전에 민법, 오후에 산재법, 밤에 자연과학을 하였는데, 법과목이 주는 부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자연과학에 대해 투자하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어 가끔 한시간도 못할 때가 있어서, 오전에 강제로 자연과학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험 두달 전부터 2주에 하루 정도로 쉬는 시간을 줄였고, 하루 공부시간도 11시간 정도로 늘렸습니다. 1차 시험은 막판 스퍼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안 올라와 있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시험날의 실력이 내 실력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막판 스퍼트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60.33점	50.33점	63점	60.66점

【커리큘럼】

		3월	4월	5월	6월	7월
민사소송법	강의	기본강의	사례강의			
	GS			기초GS +실전A	실전B	모의고사
특허법	강의	기초GS plus		기출풀이	최판강의	모의고사
	GS				실전B	
상표법	강의	기초GS plus		최판강의	기출풀이	모의고사
	GS			실전B		
선택과목 (디보법)	강의		사례강의		실전GS	
	GS				(4회차)	

【암기 방법 - 공통】

제 생각에 암기의 핵심은 자주 뇌에 같은 내용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짧은 주기로 때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번을 진득이 보는 것보다는, **자주 여러 번** 보면 암기가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암기가 유난히 되지 않는 내용들은 포스트잇에 모두 적어서 책 표지 뒤 페이지에 잔뜩 붙여놓고, 매일 회독 전에 해당 내용들을 보고 회독했습니다. 뇌에 때려넣는 주기를 줄이려는 방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포스트잇을 집 또는 스터디카페 곳곳에 시선이 닿는 곳에 붙여놓는 것도 애용한 방법인데, 1차 때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였는데, 설거지 하면서 시선이 닿는 찬장이나, 불 끄는 스위치 위에 붙여놓고 보일 때마다 읽어보았습니다.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를 좀 보았습니다. 다만 저는 유난히 안 외워졌던 생물이나 지구과학 내용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밥을 먹으러 스터디카페서 집을 갈 때나, 이동하는 지하철 등에서 법학을 잘 모르는 가상의 인물을 두고, 암기해야 할 내용들(문학판검set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종알종알 거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구조가 명확히 잡혀있어야 하므로, 스스로 설명하며 개념을 정리하고 암기도 되는 효과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종종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효과는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문자의 활용은, 쌤암기에 있어 꽤나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변리사 수험판에 진입하면서 ‘두문자’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는데, 처음에는 앞글자만 따서 쌤으로 암기하는 방식 자체에 거부감이 들었으나, 괴랄한 양 앞에서 두문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단기간에 빠른 암기를 위해 두문자를 저극 활용하여, 두문자들만 모아놓은 두문자 노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허와 상표는 진짜 안 외워지는 판례들만 두문자를 쓰긴했는데, 판례가 여러 요소를 나열하는 형식일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요소들의 두문자를 따서 암기했고, 이는 사안포섭시에도, 두문자 딱 요소별로 포섭을 두껍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GS 공부 방법 - 공통】

2차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학원에서 GS를 수강하시게 될텐데, 개인적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현장 강의로 듣는거를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며 공부 자극도 많이 받고, 온라인으로 쓰는 것보다 더 높은 몰입감 및 시험과 유사한 현장감이 구현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저는 GS 목차를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강사님 답안이 기본서의 목차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GS 작성 시 기본서에 있는 목차 외에 추가된 목차를 기본서에 단권화했습니다.

저는 GS를 통해 **시간관리, 논점파악, 사안포섭**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문제 당 시간 36/24/36/24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실전 GS 때부터는 논점표를 미리 보지 않고, 문제마다 놓치는 논점이 없도록 꼼꼼히 풀이하는 연습을 했으며, 일부러 판례를 얹게 작성하고 무리하게 포섭을 길게 해보는 연습도 했습니다. 덕분에 실제 시험에서도 조금 생소한 논점들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잡아낼 수 있었고, 상표 3번처럼 포섭이 중요한 문제의 경우 매우 고득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안 포섭 공부 방법은 아래 상표 공부방법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시험에서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엽적인 부분이든, 문제가 길든, 알지 못하는 판례인 경우 등등 당황할 상황은 많습니다. 이럴 때 대처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모든 시험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GS의 순기능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당황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GS에서 돌발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S 성적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실제 시험 채점 방식과 다르다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전 GS 성적이 나름 상위권(10~20%) 머물렀던 민사소송법과 상표법은 실제 시험에서도 고득점했고, GS 성적 중위권(40~50%)였던 특허법의 경우 50.33점을 득점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실력이 반영된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점수: 60.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이창한 강사님 기본강의, 사례강의, 기초 GS, 실전A, 실전B

▪ 교재

통합 민사소송법, 암기노트, 사례 민사소송법

【시기별 공부】

▪ 3월 - 기본강의 수강 및 회독(하루 8h 정도)

1차 시험이 끝나고 한 주를 통으로 쉬 후 본격적으로 기본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본강의를 들을 때는 최대한 열심히 들어도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도 절차법이므로, 전체적으로 배우고 회독을 진행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용이 이해될 리는 없으므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묵묵히 회독과 인강을 병행하면서 기본강의를 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통합 민사소송법을 가지고 회독을 진행하였는데, 단순히 글을 읽는 것도 매우 큰 고통이 수반됩니다. 내용들이 이해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책만 읽으려고 하니 그냥 그 읽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강의와 처음 회독을 진행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공부해야 할 내용들에 이런 파트가 존재하는구나 하고 크게 크게 보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로 그냥 책에 보다 익숙해지자는 생각으로 도저히 안 읽히는 부분은 넘어가면서 힘겹게 1회독 정도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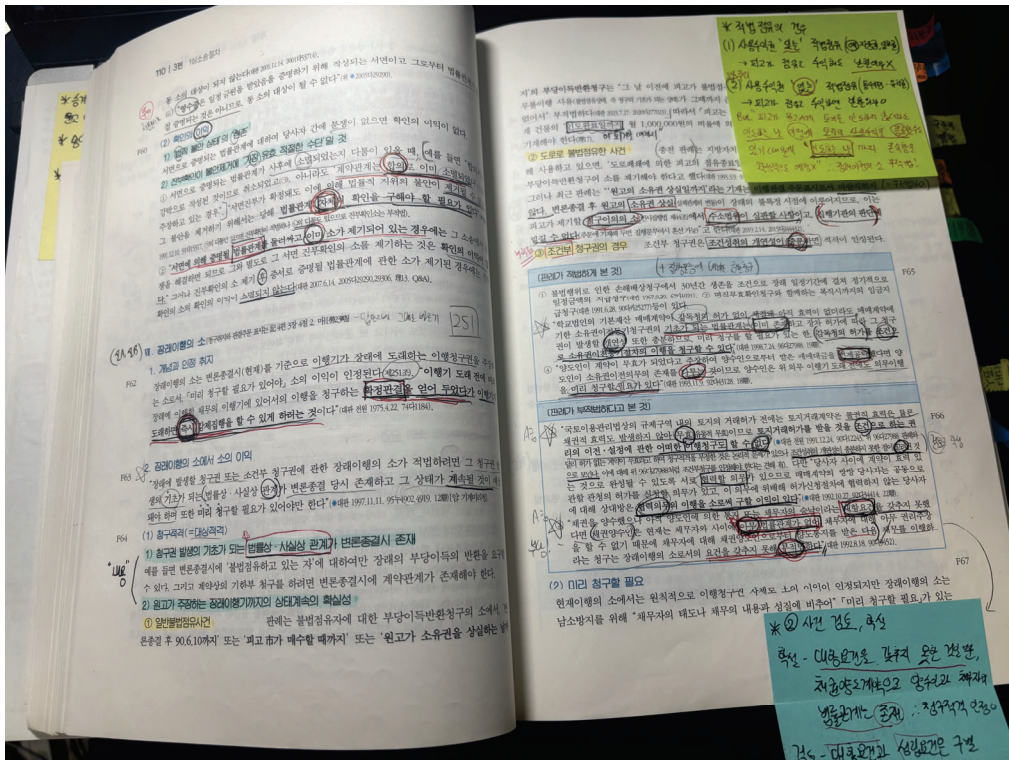
4월 - 사례강의 수강, 암기노트 단권화 및 회독 시작 (하루 8h 정도)

사례강의를 들으며 실제 기본강의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를 배웠고, 답안 작성방법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사례강의를 듣다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은 통합으로 돌아가 다시 읽어보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례강의를 수강하면서 동시에 통합 회독을 해보려 했고, 이때는, 통합에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는 “set”로 묶어서 말 그대로 하나의 세트로 암기했고, 통합의 서술 준위 중 소목차, 양괄호, 반괄호, 원문자 부분을 각각 다른 색의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회독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칠하면서 어떤 주제 안에는 어떠한 논의가 존재하는지 최대한 머릿속에서 **구조화**하면서 회독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여전히 제대로 읽히지 않았고, 큰 틀이 잡혀있지 않은 것 같

아서, 암기노트를 기본서로 하고 통합은 백과사전처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암기노트로 기본서를 변경하고 가장 큰 실력 상승을 이룬 것 같습니다. 암기노트는 통합과 같은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미 통합을 2회독 정도 한 상태라 어느 정도 익숙했습니다. 암기노트 회독시에도, 해당 단원의 논점이 무엇이 있고, 목차 준위별로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회독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양이 매우 방대하여, 특정 한 부분만을 배운다고 해서 바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닌, 뒷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지만, 묵묵히 계속 회독하면 전체적인 실력이 빠르게 늘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때는 기본서 회독 진도에 맞춰 사례집으로 한번 더 복습했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부함에 따라 오개념을 바로잡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한 강사님께서 풀어주시거나 짚어주시는 문제들만 복습 진행했고, 함께 자주 쓰이는 논점들은, 기본서에 해당 파트에 역할 수 있는 논점을 적어놓고 함께 회독했습니다.



암기노트 하이라이트 및 단권화 예시

5월 - 기초GS, 실전 A 수강. 암기노트 반복회독, 사례집 모든 문제풀이 시작 (하루 7h 정도)

5월부터는 주말에는 기초 GS를 수강하여 답안 작성 연습을 시작했고, 평일에는 GS복습 및 실전 A 목차잡기 2시간, 기본서 회독 3시간, 사례집 풀이 2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사례집은 문제만 있는 페이지를 보고 목차 및 키워드만 작성하였고, 모든 문제에 번호를 매기고, 이를 3의 배수로 나누어서 모든 논점을 고루 공부했습니다.

동차의 입장에서 사례집 '모든'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지가 의문일테고, 저 역시도 강사님께 추천하는 커리큘럼을 여쭙어보며, 사례집 모든 문제 회독이 어떨지 의견을 묻기도 하였는데, 시간 상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했으나, 결국 이 시험은 동차 뿐 아니라 기득 및 n시 수험생들과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모든 문제를 회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시간상 모든 문제를 'n회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첫 1회독 시에 논점을 통으로 누락하거나, 특정 목차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는 체크해놓고, 다음 회독 때는 체크해놓은 부분만 회독했습니다. 대신 기본서 회독과 최대한 진도가 겹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금 기본서 회독한 내용을 그대로 사례집에서 풀이하면 실제 갑작스럽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못 풀 문제를 마치 풀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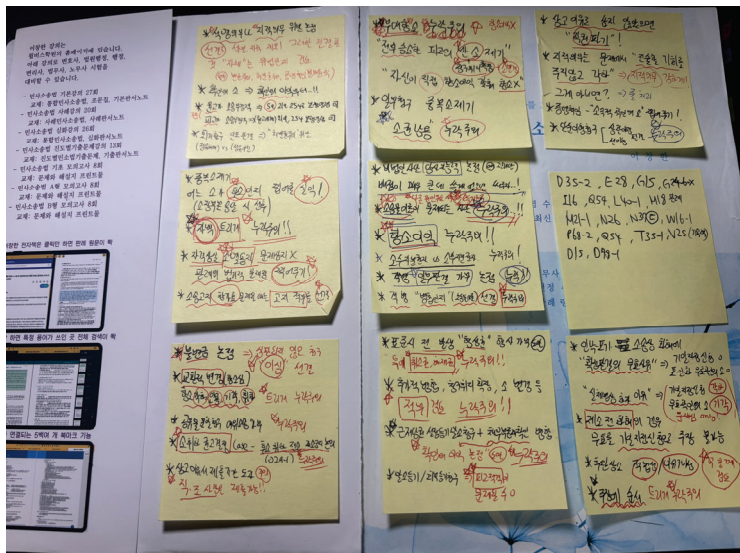
실전 A 역시 너무 어려워서 뭘 써야 할지도 모르겠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그럴 때는 그냥 답안 확인하고, 이런 논점들이 쓰인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본서에 표시했습니다. 종종 암기노트에 없는 논점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때는 통합을 참고하여, 포스트잇에 문항판검set를 정리하여 암기노트에 모두 단권화했습니다.

6월 - 실전 B 수강, 암기 스퍼트 올리기, 사례집 체크해놓은 부분 회독, 자주 누락하는 논점 정리(하루 7h 정도)

5월에 반복 회독 덕분에 어느 정도 암기상태가 올라온 상태였고, 따라서 실전 B GS는 책 없이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암기 노트에 없는 내용이거나, 종종 논점 파악이 어려웠던 문제들이 존재했지만, 시험 때 대처방법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관련된 논점들을 끌어오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에도 분명 당황스러운 문제가 존재할 것인데, 이를 위해 실전 GS에서 최대한 많이 당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동차라도 최대한 실전 B 수강 전까지 암기상태를 끌어올리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무엇을 적어야할지 아무것도 모른채로 실전 B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받았을 때 논점들을 최대한 떠올리고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실제 시험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문제 3-3번의 최신판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뭘 적어야할지 매우 당황했는데, 소송대리인의 상소제기 특별 수권 및 대리권 상실에 대해 최대한 기본서에서 끌어올 수 있는 논점을 떠올려, 심급대리원칙 문학판검을 길게 적는 형식으로 양을 채웠습니다. 덕분에 3번에서 점수를 꽤 방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례집은 5월처럼 회독을 진행하되, 체크해놓은 부분만 진행했고, 자주 누락하는 논점들은 포스트잇에 정리하여 기본서 맨 앞 페이지에 연달아 붙여놓아 매일 회독 전 해당 부분부터 읽고 회독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포스트잇이 많이 붙여져 있었는데, 회독을 반복해가며 많이 속달되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떼어가면서, 최종 시험장에서 볼 포스트잇들만 남겨놓았습니다.



누락논점 포스트잇

-특허법- <점수: 50.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박형준 변리사님 기초GS plus, 실전B, 최신판례강의
- 교재
준특허 plus, 준특허 사례집(상), 총알, 최신판례자료

【시기별 공부】

3월 - 기초GS plus 수강, 총알 암기 (1h~2h 정도)

민사소송법에 깔려 하루에 한시간 정도 총알 20개 암기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몇몇 판례들은 1차 때 암기해놓은 내용들

이 있어 수월했지만, 매일 20개를 누적하여 암기하려고 하는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금요일에는 주말에 쓸 논점들이 있는 부분을 더 시간 투자해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월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모르는 동차생의 입장에서 총알같은 엑기스 암기 자료는 너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월 - 기초GS plus 수강, 준특허 회독 시작 (1h~2h)

4월 초반엔 3월과 마찬가지로 총알 암기에 주력했고, 민사소송법 사례강의가 마무리된 후, 준특허에 총알 내용에 하이라이트를 치고, 준특허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기별 강의 때, 연필로 필기했던 내용들을 보다 뚜렷이 정리했고, 각주는 박형준 변리사님께서 짚어주시거나, 기별에 출제되었던 내용만 동그라미치고 함께 회독했습니다. 항상 오전 시간을 투자하여 기초GS를 한 시간 정도 누적 복습했고, 밤에 한 시간 정도 준특허 회독하면서 오개념을 잡아가는 데 주력했습니다.

5월 - 기출문제 풀이, 준특허 반복 회독 (2.5h~3h)

박형준 변리사님 사례집으로 최근 8년 치의 **기출문제**를 풀답안 작성했습니다. 5월은 주말에 오전엔 민소 기초GS, 오후에는 상표 실전B가 있었으므로, 상표GS가 끝난 후 혼자 강남 스테디카페로 가서 기출문제 프린트 후 풀어보았습니다. 직접 풀어보시면 느끼겠지만, 문제에 사실관계가 얼마나 빈약하게, 즉 rough하게 주어지는지 알 수 있고, 이에 대처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치 문제들의 난이도에 충격을 받아서 기출 및 기초GS 문제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조치를 떠올려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저는 A급 또는 B급으로 찍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주들도 열심히 읽어보며, 암기해야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동그라미 치며 누적 회독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굳이 그래야했나 싶긴 하지만, 아예 모르는 내용이 나올까 하는 두려움을 조금은 줄여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계속 경계하며 회독했습니다.

6월 - 실전B 수강, 최신판례 강의, 준특허 회독

실전 B는 최신 판례와 탑텐 판례를 위주로 한 문제들로서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에 대해 미리 연습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특허는 기출문제를 보아도, 전통적인 A급, B급, 최신판례 뿐 아니라, 쌍돌, 법조문, 리딩케이스, 조치 문제 등이 모두 고루 예상치 못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최신판례만 보기보다는 기본서 회독을 통한 기본기를 확실히 잡아놓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특허 3번 문제에서 보정기간 지났음에도 출원 일부 취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적은 부끄러운 실수를 했는데, 기본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실전 B를 통해서 처음 최신 판례를 접하다보니, 판례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박형준 변리사님 최신판례 강의를 수강하면서 판례 사실관계 및 사안포섭을 구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물론 실전B 해설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보다 입체적으로 판례를 이해하고 싶다면 최신판례 강의 꼭 듣는 것 추천드립니다.

주말마다 쓴 GS를 매주 기본서에 단권화하였고, 기본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이미지처럼 찍힐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회독했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지루하고 가끔은 이 정도면 다 외웠다 싶은 적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다잡고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했습니다.

-상표법- <점수: 6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한경훈 변리사님 기초GS plus, 실전B, 최신판례강의

▪ 교재

점, 선, 피날레, 최신판례자료

【시기별 공부】

3월, 4월 - 기초GS plus, 점 회독시작 (1h 정도)

상표 하루 공부 목표를 한시간으로 잡긴 했으나, 민사소송법 때문에 사실 한시간도 못한 적이 많습니다. 금요일에 그나마 미리 기별 논점표에 맞추어 점 내용과, 판례 사실관계를 공부했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량이 많이 부족하긴 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조금씩 공부량을 늘려서 점을 회독하면서 모든 개념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했고, 판례의 포섭과 사실관계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피날레를 함께 옆에 두면서, 추가적으로 외워놓고 싶은 포섭 등을 적어 단권화 했습니다. 전술하였듯, 1차 기간에 상표 판례들을 열심히 공부해놓은 덕분에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답안 작성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며 사실상 한경훈 변리사님의 모범 답안 작성 스타일을 (목차 작성 방식 등) 그대로 따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5월 - 실전 B, 피날레 회독, 최신판례 강의 (2.5h~3h)

상표는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다른 과목보다 높으므로 시험일 기준 5년 안에 선고되었거나, 넉넉하게는 10년 안에 선고된 미기출 판례들은 무조건 **사실관계와 포섭**까지 꼼꼼히 공부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으로 기출된 판례는 과감하게 버렸고, 대법원 판례 위주로만 공부했습니다. 실전 B에서는 충분히 시험장에서 맞닥뜨릴 만한 문제들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허법원 판례는 그냥 버렸던 저는 올해 시험에 특허법원 선고 광천김 판례가 나와 매우 당황하여 1번 문제에서 평균 10.33점밖에 득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그 해 선고된 중요 특허법원 판례는 꼭 함께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피날레는 쟁점별로 기본목차와 주요 포섭 문구들을 함께 정리할 수 있어, 빠른 실력 상승을 이룰 수 있었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상표는 실전 B GS에서도 대체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6월 - 피날레 무한 회독. GS 복습 (2.5h~3h)

GS 및 점 내용을 충분히 피날레에 모두 단권화한 후에는 피날레를 무한히 회독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모든 무기를 점검하는 것처럼, 어떤 쟁점이 나와도, 그 쟁점에 맞춰 **피날레 목차**를 현출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회독했고, 포섭 아이디어들도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전부 피날레에 단권화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워낙 얇은 책이라, 회독 주기가 그리 길어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유난히 안 외워지는 부분들을 인덱스 스티커 붙여놓고 전체 회독 한번, 스티커 붙여놓은 쟁점만 회독 한번을 번갈아 가면서 회독하여 약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였고 덕분에 모든 쟁점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월에 상표 GS를 작성할 시간이 없어서 풀답안 작성하지는 못했고, 목차잡기 정도로만 문제풀이 감을 유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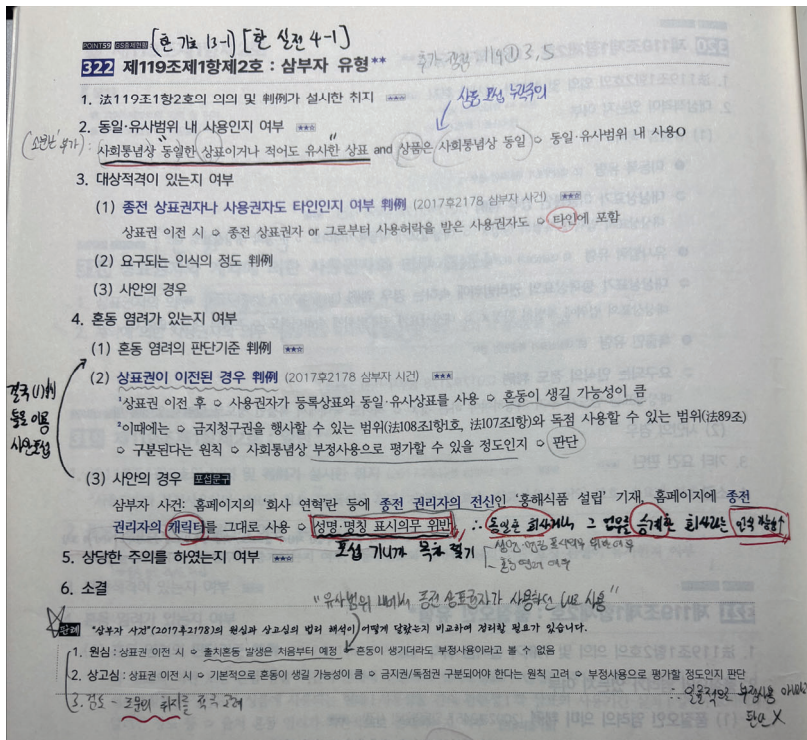
【사안포섭 공부방법】

최근 몇년간 상표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확실히 예전에 비해 상표법 고득점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역시 특허,

민소에 비해 평균도 높고 고득점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표 고득점의 핵심은 역시 '사안포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안포섭의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1200명의 답안지를 채점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분량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 포섭을 잘하기 위해 상표 공부시간 중 많은 시간을 포섭 연습에 할애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 상표가 '유사'한지는 물론 여러 객관적 사정을 살피긴 하나, 주관적인 판단이 가미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양 상표가 유사한지를 설명하는지가 중요하므로, 대법원 판례가 해당 법리를 사안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판례집에는 법리 중 여러 판단 요소 별로 (상표의 유사성, 사용태양, 주지 저명성 등등) ㉠, ㉡...로 표시하고, 해당 요소에 맞는 포섭 부분에 똑같이 ㉠,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응시키면서 대법원의 포섭 방식에 익숙해지고 이를 흉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상품의 속성이나 거래실정은 내가 아는 만큼 포섭을 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판례들에 나와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상품별로 대법원이 포섭한 속성이나 거래실정을 피날레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GS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경훈 변리사님이 꼼꼼하게 포섭해주시므로, 해당 포섭 아이디어도 모두 정리하여, 의류 및 약세사리, 식당이나 카페 등의 운영업 등 자주 나오는 상품들에 대해서 쓸만한 내용들을 많이 단권화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상표 3-1번에서 주어진 사실관계가 얼마 없었음에도, 의류라는 친숙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기초하여 포섭으로 2page를 채워 3번을 매우 고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GS 및 점 내용 피날레 단권화 예시

-디자인보호법-

<점수: 60.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 타학원 강사님 필수 사례강의, 실전GS(4회차)
- 교재
 - 타학원 강사님 기본서

【시기별 공부】

4월 - 사례강의 수강, 5월 - 기본서 회독 (30min)

3월에는 시간이 없어서 아예 기본서도 안 샀고, 이러다 선택과목 탈락할 것 같아,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필기도 열심히 해놓았으나, 도저히 평일에 디보법 공부할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 어려워서 집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씩 보거나, 하루 공부 마무리쯤에 30분정도 투자하여 A급, B급 단원들만 회독하려고 했습니다.

6월 - 암기스퍼트 올리기, 실전 GS (1h 및 자투리시간)

5월도 3법에 대한 실력 상승을 위해 사실상 거의 디자인보호법에 투자하지 못했고, 6월부터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심정으로 하루 한시간은 꼭 투자하여 암기했고, 특히 화상디자인과 화면디자인 파트가 외울게 많아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심사기준은 변리사님께서 짚어주신 부분 및 GS에서 출제된 것만 암기했고, C는 모두 버리고 A,B 위주로만 두문자 열심히 따서 암기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역시 포섭이 꽤나 중요하므로, 무료 배포해주신 판례집 중 최신판례의 포섭 부분만 열심히 읽어보며 어떤 식으로 포섭이 들어가는지를 공부하고 GS에서 이를 소화시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디보 GS는 총 4회차만 진행했고, 개인적으로 특히, 상표 GS를 통해 충분히 연습되므로, 4회차만 해도 충분한 느낌이었습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문제-1〉	
I, 실문 1	65
1. 논쟁점	
독립상사회권자 소송목적 전·일부자 계약 해지권 주장 해제 권리가 항변권인 주장하는 제 3자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비법권의 권능을 귀속주체로 자신재는 주장으로 제기 할지 여부, "권리주체 증가"의 요건을 살핀다	
2. 권리주체 확대 요건	
① 비법권자 소송 계속 중 ② 소송 목적 전·일부자 계약 해제권 주장하고, ③ 참가취지를 적당히 구별하여 ④ 양당사자관계 존재여부	
3. 참가자격 구별 여부	
(1) 양당사자관계 해제권은 독립상사회권자 계약 해지권 주장하는 독립 상사회권자가 가능하고 해금권 주장하는 경우, 자신이 권능을 행사하는 등, 권리주체로써 다른 사람과는 경우 소송 목적의 전·일부를 이루는 것이 된다	
(2) 사명의 경우 두는 그의 경우나 비법권을 통해 영구적으로 반환하는	

〈민사소송법 실전 GS 답안 중 일부 발췌〉

① 양 당사자 외권은 모두 당사자인 계약의 당사자로 C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수로로 재판 관할권을 부여 하면 이, 다른 소수인 중 한 명은 소수의 소수인 등으로의 외권은 무효이고, ② 소수의 소수인 '소수인'은 등으로의 외권은 무효이고, ③ 소수의 소수인 관할권 부여할 수 없다. ④ 양 당사자는 외권, 소수의 등은 무효에 한하여 소송 영속이 되어 무효이다
(4) 부당권 주장 경우 (3자)
1) 판정권 행사권 신상용 상표 인지도의 중요성의 정도, 상표의 유사성, 고급사 여부, 유사성의 정도, 상표의 권리 관계, 상표의 유사성의 여부, 상표의 유사성, 유사성을 증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사명의 경우
① 신상용 상표 권리 'CARD'는 주권자에게 대하여 권능을 행사하고, 미국, 캐나다 지역 내의 여러 차례, 최종 위법 자에게 본래로 인정되어, 판정권은 무효로 인지도가 높고, ② 그의 다른 유사한 상표를 중요 소송방안이며, ③ 그는 2015년 10월 1일부터 부 신상용 상표 부속된 자권자를 수입해서 판정권 자신의 상표 일정한 관계에 있던 것이다.
④ 또한, 그의 다른 권리 권능성이라는 점도 부

〈상표 실전 GS 답안 중 일부 발췌〉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0페이지	약 25자	1.목차 사이에 엔터O	세로 폭의 2/3 정도
특허법	20페이지			
상표법	20페이지			
선택과목	20페이지			

【글씨 노하우】

위 첨부한 답안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글씨체가 전형적인 초딩 글씨체인지라, 항상 가독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어서, **들여쓰기 및 원문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가독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글씨체는 이쁘게 써보려 노력했지만, 뒤로 갈수록 손도 아파져서 더 날라가서, 초반에 최대한 또박또박 적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채점하는 만큼 와꾸 및 가독성이 중요하기는 하나, 수험생 모두 사활을 걸고 준비하는 시험인 만큼 교수님들께서도 최대한 잘 봐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한 펜】

처음엔 ‘제트스트림’ 0.5를 사용했지만, 너무 미끌미끌한 느낌이 싫어서, 좀 더 사각사각되는 저항감이 느껴지는 ‘사라사’ 리필심을 제트스트림 펜대에 끼워 사용했습니다. 워낙 강하게 펜을 잡는 습관이 있어 손가락이 아파져서 폭신한 펜그립을 끼웠습니다. 본인이 2시간 동안 직접 작성해 보며 최대한 편안하고 일정한 글씨체가 구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펜대와 펜촉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문항 별 각각 36/24/36/24분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따라서 문제를 읽고 푸는데 4~6분, 1page에 5분 정도 작성하는 속도로 맞추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넘더라도, 논점 명확히 파악 및 답을 확실히 낸 후 답안 작성 시작했고, 시간 맞추려고 긴가민가 한채로 답안작성을 시작해본 경험상 항상 오히려 시간이 더 부족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길어질수록 논점 이탈 및 누락이 잦아지므로, 문제에 중요 사실관계 및 물어보는 것을 눈에 잘 보이도록 명확히 표시하면서 풀었습니다. 표시 방법은 한경훈 변리사님이 기별 강의 초반에 알려주시는 표시 방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기타-

【시간 관리】

늦어도 9시까지는 공부를 시작하려 했고, 오전에는 전과목 GS 복습을 진행했는데, 쌓여가는 GS를 누적복습 하는데 4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내내 민사소송법 기본서 및 사례집 회독 진행했고, 저녁 식사 후 특허와 상표 기본서 회독했습니다. 11시 정도 귀가했던 것 같습니다.

3~4월 중순까지는 순공 하루 10~11시간 정도, 5월부터는 11~12시간, 6~7월은 12~13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열풍타를 활용하여 시간관리 했고, 핸드폰을 잠가놓기 때문에 유혹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어 꽤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1차 기간에는 나름 운동도 열심히 하였으나, 2차에 돌입하면서 헬스 가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느껴져서 그냥 조금만 참자는 생각으로 운동을 아예 쉬었습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살이 찌고, 둔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맛있는 집밥과 건강식품을 잘 챙겨주신 덕분에, 체력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1차가 끝나고 가채점을 해봤을 때만 해도, 넉넉하게 합격할 것 같아, 2차까지 한번에 붙어보자는 동기부여로 불타올랐으나,

3~4월 이 시기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감이 잡히지 않고, 양이 너무 방대해서 정녕 내가 이걸 7월까지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싶었던 민사소송법, 거의 기별 시기 내내, 한 시간에 한 문제도 다 적지 못해 6~80% 성적을 전전했던 경험 등 좌절할 적이 많습니다. 특별한 멘탈 관리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내가 직접 선택한 힘듦이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이 배워가자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묵묵히 정진한 덕분에 운이 좋게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효과적이었던 동기부여는, 1차, 2차에 걸친 학원비 및 교재비가 만만치가 않은데, 이를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모은 군 적금으로 모두 충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수험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면 그것대로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열심히 모은 군 적금이 모두 들어갔다는 생각에 아까워 서라도 도저히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기간엔 가끔 제 군 적금이 증발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지만, 가끔 좌절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부 장소】

1차 때는 학교 도서관에서 했고, 2차 때는 집 근처 스터디카페에서 했습니다. 3~4월에는 벽으로 모두 가로막힌 개인형 독서실을 다녔는데, 혼자 있으니 계속 핸드폰으로 딴짓하고 집중을 잘 못해서 학교 도서관과 유사한 분위기의 오픈형 스터디카페로 변경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공부 효율이 스스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환경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그리 열심히 세우는 타입도 아니고, 그때 그때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터디와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1차, 2차 통틀어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변리사 시험만의 고충을 주변에 말해봤자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스터디원이 없으면 정보도 느낄 뿐 아니라, 무언가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혼자 묵묵히 자기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스터디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휴식】

3~4월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었고, 되도록이면 월요일에 쉬려고 하긴 했으나, 다른 요일에 쉬기도 했습니다. 5월부터는 2주에 하루 정도로 쉬는 시기를 줄였고, 6월, 7월은 하루를 통으로 쉬지는 않았고, 저녁에만 쉬는 식으로 공부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장기레이스에서 휴식은 필수입니다. 저는 휴식할 때는 공부에 대해 잊으려고 서울 곳곳 돌아다니며 맛집도 가고, 열심히 쉬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휴식 방법을 잘 찾아서 적절히 휴식하시며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이 글을 읽는 수험생분들께 저의 경험을 적은 합격수기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는 어쩌면 운이 조금 더 따랐을 뿐, 제가 뛰어나거나 더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수험생분들께서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과 간절함이 얼마나 치열한 과정인지 알기에 조용히 그리고 열렬히 응원하게 됩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감, 초조함,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까지도 모두 합격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한 스스로를 따뜻하게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험생분들의 귀한 노력이 반드시 합당한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라도 제게 수험생활 관련 질문이 있으시다면 suhonpark121@gmail.com으로 편하게 메일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부모님과, 많은 것을 감내해 준 여자친구, 그리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